

“악취 걱정 없다” 큰소리 쳤던 광주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 1년만에 심각한 악취...주민들 고통

유타사업소에 700억 들여 건립...배출 기준치 4배 초과

6개월 뒤 재측정도 개선 안되고 원인 규명조차 못해

700억원을 들여 건설된 광주 제2공공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법정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한 악취물질을 배출하면서 인근 지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은 관련법을 위반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간의 지구책을 마련해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원인 규명조차 못한 상태로 여전히 법정 기준치 4배를 웃도는 악취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제2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난해 10월 1일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기타지역 배출구 기준)인 ‘희석배수 500’을 4배 이상 초과한 ‘희석배수 2080’의 악취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광주 서구가 시설 개선견고를 내린 뒤 지난 4월 13일 2차 측정을 진행했지만 이때도 희석배수 2080을 기록,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해당 시설이 6개월간 배출구 필터 교체, 악취저감 약품 변경, 배출구 내부 세정, 먼지 필터 교체 등의 지구 노력을 벌였다고 했지만 법정 기준치를 4배 이상 넘어서는 악취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이 700억원을 들여 지어진 뒤 가동 1년여 만에 법정 기준치를 넘어선 악취물질을 외부로 내뿜는 데다, 시설 개선효과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은 가동 한 달여 만인 지난 2013년 7월, 완벽한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이 준공·가동되면서 구

간 민간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당시 제기됐던 ‘악취 민원’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시설을 건설한 업체 뿐 아니라 운영·관리 감독 주체인 광주환경공단과 광주시 등이 8개월째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하게 된 공정상의 원인 규명에 실패하는 등 악취 저감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애꿎은 지역민들만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악취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돼 측정된 결과 법적 기준치를 4배 이상 초과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현재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또 “법적 기준치를 계속 초과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주민 환경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시설 개선명령과 조업 중단 명령 등 규제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광주환경공단 측은 “아직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악취관련 하자를 바로 잡아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환경공단 유타사업소(지평동)에 위치한 광주 제2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은 광주 5개 자치구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를 사로나 바이오가스로 변환시키는 등 하루 평균 30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하수관로 오물 제거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12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주택가 도로변에서 하수준설차를 이용해 하수관로에 쌓인 오물을 제거하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무기수 김신혜씨 15년만에 법정에 선다

‘아버지 살해 혐의’ 복역...오늘 재심 개시 여부 첫 심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중인 무기수 김신혜씨가 다시 법정에 선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3일 오전 11시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이른바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再審)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심문은 재판부가 재심을 청구한 쪽의 사유를 들어보고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김씨도 출석한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2월 28일 광주고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15년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경찰을 상대로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직무상 범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재심 개시를 위한 새로

운 자료를 제출했다. 또 피해자 사망 1~2시간 전에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부검 감정서와 70여개의 새로운 증거, 외국사죄, 판례도 추가로 제출했다.

형사 재판에서 재심 사유는 ▲증거 위변조, 증언, 감정 등 허위, 무고죄가 증명된 때(확정 판결)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등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이뤄졌을 때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법률구조단 측은 “재심 결정이 나오면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이 개시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1년 3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

‘비자금 의혹’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구속 기소

정원주(48) 중흥건설 사장이 회사자금 252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에게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 사장의 횡령 규모를 235억원으로 파악했고 17억원의 배임 혐의 등도 포함시켰다.

정 사장은 횡령액 중 가족들 생활비와 적금 등으로 80억원을 썼고 사업 확장을 명분으로 한 알선료 11억원, 일가 소득세 등 세금 대납 8억원, 정 사장 개인 채무 변제 7억원, 상가 구입비 4억원 등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임 규모도 계열사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13억원과 계열사에 의한 차입금 4억원 미변제 등 17억원 상당의 사용처를 확인했다. 검찰은 나머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25억원에 대해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지만 정 사장은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회사를 위해 쓰인 돈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사장이 가공의 원재료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 계산해 현금을 회사 내에 남겨두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중흥건설 계열사 소유 아파트나 건물 등의 임대차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한 뒤 반환해주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가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인출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빼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국제청 전 고위공무원 출신 세무사 A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8일 중흥건설 탈세 혐의에 따른 국제청 세무조사와 관련, 형사고발 과정에 관여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를 확인했다. 검찰은 나머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25억원에 대해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지만 정 사장은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회사를 위해 쓰인 돈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사장이 가공의 원재료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 계산해 현금을 회사 내에 남겨두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중흥건설 계열사 소유 아파트나 건물 등의 임대차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한 뒤 반환해주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가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인출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빼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울러 국제청 전 고위공무원 출신 세무사 A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8일 중흥건설 탈세 혐의에 따른 국제청 세무조사와 관련, 형사고발 과정에 관여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24km 추격 집요한 ‘보복 운전’ 2명 결국 구속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24km나 쫓아가며 상대 차량에 보복운전을 한(광주일보 7일자 6면) 운전자 등 3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집단 이준철 판사는 11일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쫓으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추기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전자 류모(31)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류씨와 동승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류씨 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수석 뒷자리에 함께 탄 류씨의 친구(31)는 가담 정도가 미흡하고 과거 전과가 없음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류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새벽 5시 40분께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A(45)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여수국가산단의 A씨 회사까지 무려 24km나 A씨의 차량을 쫓으며 집요하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경찰은 류씨 등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않았지만, 타인의 생명 등을 크게 위협하는 등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범죄형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이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안모(61) 청해진해운 해무

이사 등 다른 5명에 대해 2~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모(52) 우련통운 팀장 등 3명은 집행유예를, 문모(59) 우련통운 본부장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의 과실이 단계적으로 결합,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토대로 청해진해운 임직원, 세월호 선장, 화물 선적 및 고박업체,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1심과 비교해 6명은 원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으며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1명씩 늘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치과여사의 탈선...여수 등 돌며 가전품 사슴절도



“매장 직원이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치과여사가 CCTV로 경찰에 들미.

○1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A씨(48)는 지난 8일 오전 11시20분께 여수시 국동 롯데마트에서 휴대전화(35만원 상당)를 몰래 가져가는 등 지난 3월 초부터 대구, 울산의 대형 마트, 의제자 수리점 등

에서 5차례에 걸쳐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27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북의 한 치과병원에서 월급 의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병가를 내고 고향인 여수를 찾아 여행을 저지르다 적발됐는데, 경찰은 “A씨가 서울에 개업한 병원이 동료의사의 신고로 문 닫게된 뒤 술을 자주 마시며 성격이 변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	------------------------------	-------------------------	---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천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